



문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장 서창대 사무관 손은정	042-481-5182 042-481-5961
 	2021년 2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21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영업비밀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 기업 규모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도입·구축하도록 영업비밀 전문가(변호사, 보안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특히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정보의 양과 중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기업이 어느 수준으로 비밀관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은 ‘20년에 처음으로 심화컨설팅을 도입하였다.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파악하여 비밀등급 분류, 서식·규정 검토, 비밀자료 분리·보관 등 업무상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CEO를 포함한 전 직원 교육 및 영업비밀 보호 선포식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직원들이 보유자산을 목록화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영업비밀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게 되어 컨설팅 이후 지속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심화컨설팅 부문별 세부내용]

제도적 관리	인적 관리	물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 비밀등급 분류 지원·감수 •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준수의무 부과 •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 사외 반출절차 관리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한 결과 '20년에 지원한 50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준이 평균 3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수준 : (前) 61.9점 → (後) 81.6점, 32% ↑



올해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0개, 총 6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반기는 2월 22일(월)부터 3월 10일(수)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수혜기업인 원진월드와이드 윤병로 대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겪고 나름 준비를 해왔으나, 이번 컨설팅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을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출 이전에 사전관리가 핵심인 만큼 이번 심화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020년 참여기업 평가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손은정 사무관(☎ 042-481-59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LetinAR
레티널

심화컨설팅을 통해서 자사에 적합한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임직원 모두가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주현 IP 팀장)

CS Sharing
씨에스쉐어링

직원들이 보유자산을 목록화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직접 진행 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고 지속적인 관리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종범 정보보안 담당)

원진월드와이드
원진월드
와이드

과거 유출사건을 겪으며 마련했던 규정을 금번에 재정비하였고 당사의 사업내용, 인적구성 및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안해주셔서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윤병로 대표이사)